진우 스님 "마애불 입불, 새천년 세우는 불사"

1월 2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시무식서

'교삼토굴' 상기…위기 대응 강조

출 · 재가 종무원 300여 명 참석

천태종 등 주요 종단 시무식 개최

전국비구니회 4일 신년하례 열어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제37대 조계종 집행부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시작은 천년동안 쓰러져 계신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계묘년 새해 첫 일성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였다. 천년을 쓰러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과거 천년을 되짚고, 새로운 천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불사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라며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모두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일에 진심과 신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면서 맡은 임무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전쟁과 출가자 감소 등 불교 안팎의 위기 상황을 거론한 진우 스님은 '교토삼굴'의 지혜를 당부했다. '교토삼굴'은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판다'는 의미로 '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1월 2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대표자들이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시대적 상황과 주어진 여건이 녹녹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토끼처럼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해에도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원력과 신심, 공심으로 맡은 바 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종단과 불교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열고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법희원에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 총무원 각 부서장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듯, 계묘년에도 자신과 종단 그리고 불교계와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종단의 행정이 반듯하면 종도들의 신행도 반듯해지고, 모든 불사와 기도 수행정진이 반듯해진다"고 강조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 정사)은 1월 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다목적홀에서 진기 77(2023)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인 경정 정사는 신년법어를 통해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한다"며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보자"고 설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월 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2023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는 올해 6월 개최될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언급했다. 스님은 "각종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면서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한국비구니도 세계에 알리고, 세계불교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심단결로 비구니 승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며 "대회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회장 소임 4년차를 맞은 본각 스님은 법회에서 회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3년 간 집행부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그간의 성과들을 설명한 스님은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려 한다"면서 "다음 회장 스님을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10여 개월 동안 12대 소임자들 모두가 노력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임원 스님들은 같은 날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새해덕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1월 중으로 마무리 될 요양병원 인수를 언급하며 "불교 호스피스 분야에서 불교 역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전문지식이 활발히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지도자 스님들을 양성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전문 지식이 불교계 요양병원에서 활용, 불교를 넘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진우 스님 "불교 근본 잊지 않겠다"

1월 5일 조계사서 108배 정진

교역직 스님, 조계사 신도 동참

1차 회향… "개인적으로 계속"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2022년 9월 28일 임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의 첫 행보는 108배였고, 이후 매일 아침 6시 50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개인적 원력으로 시작했기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나 재가 종무원들이 부담될까 알리지 않고 108배를 시작했지만, 이내 동참자들도 생겨났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아침도 강화 보문사 마애불 앞에서 108배 정진을 하며 맞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1월 5일도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오전 7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전에 108배를 올렸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신도도 정진에 동참했다. 죽비에 맞춰 시작된 108배 정진은 20여분 가량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5일 조계사에서 108정진을 진행했다. 스님은 100일째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에게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총무국장 향림 스님, 조계사 지장법회 회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100일 1차 회향을 축하했다. 지장법회 회원들은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108배를 하게 된 이유와 불교와 종단이 나아갈 길을 되새겼다. 스님은 "절집에 들어온지 50년이 넘었고, 30년 이상을 스님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초발심의 순간들을 잊고 타성에 젖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초발심을 상기하고자 시작한 것이 108배"라며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 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을 108배에 담았다"고 밝혔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成佛)"이라고 말한 진우 스님은 "왜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번뇌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법 포교"라며 "이 같은 근본에 대한 지향점을 종단 종책에 담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자의 증감, 일의 성패에만 집착해서는 근본을 잊게 된다. 저 자신도 이를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 사부대중 여러분도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늘로 1차 회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8배 정진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의 108배 100일 정진을 함께 한 사부대중은 희망의 원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종단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솔선수선해서 매일 108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며 많이 감화됐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오늘은 100일로 회향하지만 다시 100일이 되고, 4년이 돼 37대 집행부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명상센터 건립"

진우 스님, 1월 4일 임명장 수여

종단 역점 종책 불사 동참 약속

조계종 제8교구본사 주지에 장명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직지사 주지로 임명된 장명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부터 직할사찰 주지 소임까지 종무행정과 포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교구본사를 이끌어가는 데 모자람이 전혀 없다"면서 "직지사는 경북의 주요한 교구본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 스님들과 함께 직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며 하신 말씀과 원력들이 그동안 사찰 주지 등 소임을 보며 가진 생각과 같다"면서 "우선 직지사 경내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단 추진 종책 불사와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4일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명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 · 15 · 16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 배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